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9년 영국·EU, 트럭운송 일일 최대 1만6천 대 도버해협 이용



물류정책·산업동향

1. 아마존, 프랑스와 인도, 이탈리아에서 생활필수품 외 배송중단
2. 영국, Mersey Maritime을 필두로 코로나19 TF 운영
3. 앤티워프항, 코로나19 대비 TF 운영을 통해 공급망 모니터링
4. UPS, 자율주행 트랙터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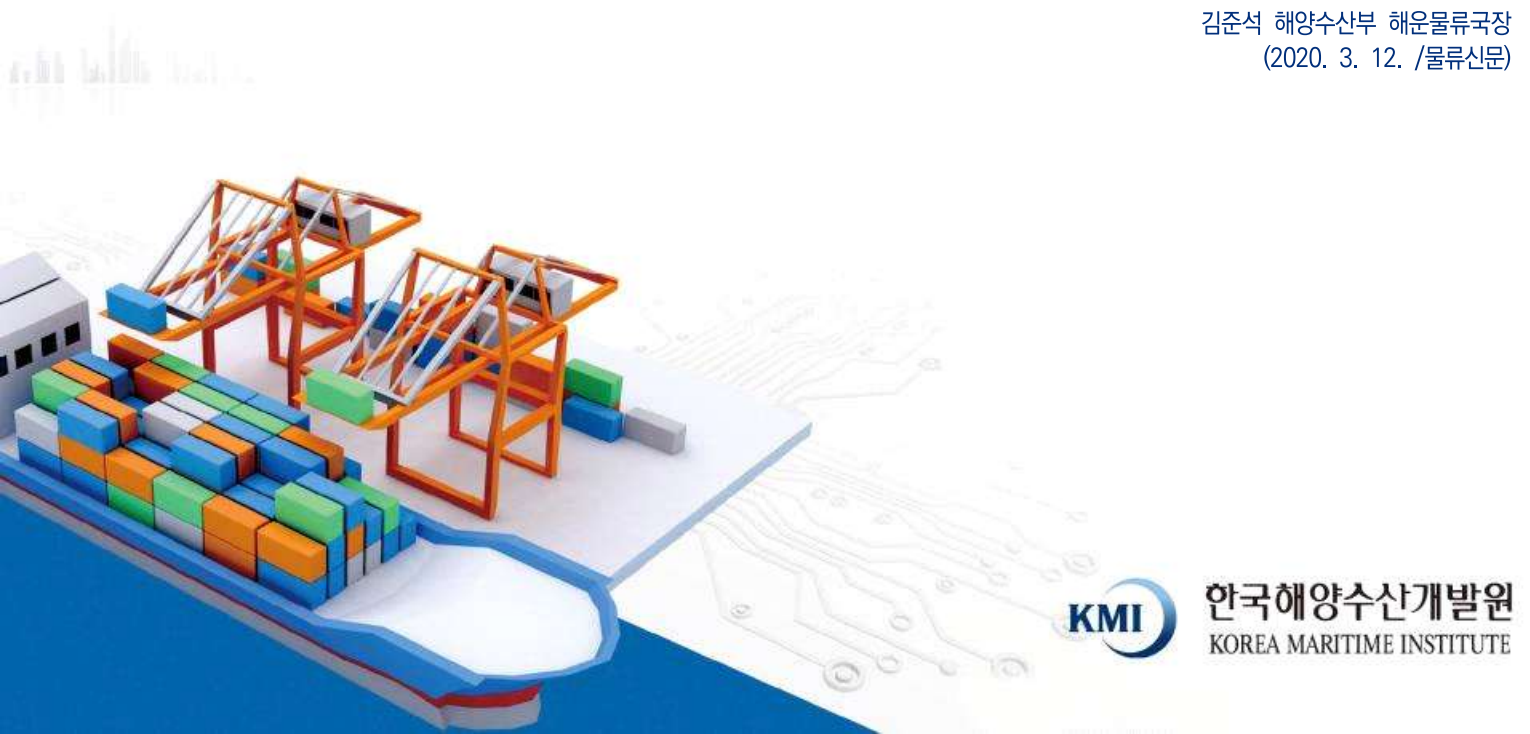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2020. 3. 12. /물류신문)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9년 영국·EU, 트럭운송 일일 최대 1만6천 대 도버해협 이용

2019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도로 운송 및 교역 현황

UK/EU trade in goods in 2019



Source: UK Trade: December 2019, ONS

Road goods vehicles[§] travelling from Great Britain to the island of Ireland in 2019



888,008 road goods vehicles[§] travelled from Great Britain to the island of Ireland.

Of which...



484,047 went to the Republic of Ireland – over 14% of all those travelling to the EU.



403,961 went to Northern Ireland.

[§]Source: Road goods vehicles travelling to Europe: 2019, Department for Transport, February 2019



On the busiest days, up to **16,000** trucks a day go through the Dover Strait (Port of Dover and Eurotunnel).

Country	Allocation of ECMT base permits	This number applies if all permits are allocated to Euro VI trucks
UK	174	2,088
Ireland	166	1,992
France	173	2,076
Germany	229	2,748
Netherlands	150	1,800
Belgium	118	1,416
Poland	322	3,864
Romania	189	2,268
Spain	113	1,356

자료: UK Trade: December 2019, ONS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교역액은 4,357억 유로를 기록함
- 영국의 유럽으로의 수출액은 1,705억 유로였으며,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652억 유로였음
- 브렉시트 영향을 줄이고 영국·유럽연합이 현재의 교역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철도 및 항공 운송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이 필요함
-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도버 해협(도버항 및 유로터널)을 통과하는 트럭 통행량은 1일 최대 16,000대에 달함
- 2019년에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도로를 통해 교역품을 수송한 화물차량은 888,008대에 이릅니다

참고자료 : <https://paulthompsonfreight.co.uk/2020/03/02/the-logistics-agenda-uk-plc-must-agree-with-eu>, www.fta.co.uk “Keeping the UK and the EU trading” (검색일: 2020.03.09.)

이지원 연구원

051-797-4799, jiwon@kmi.re.kr



아마존, 프랑스와 인도, 이탈리아에서 생활필수품 외 배송중단

- 아마존은 3월 22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배송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외의 제품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함
 - 아마존의 글로벌 기업 업무 담당 부사장인 Jay Carney는 “Amazon.com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계속 판매되고 있지만 그 필수 품목은 우선순위가 정하고 있다”고 전함
 -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필수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한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며, 유아용품과 건강 및 가정용품, 식료품, 애완동물 용품 등 필수 제품의 배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함
 - 이탈리아와 프랑스 소비자는 아마존 물류를 통해 배송하지 않는 아마존 판매자로부터 비 필수제품을 주문할 수 있지만, 배송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함
- 아마존은 또한 인도에서 3월 24일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제품의 배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에 따른 전자 상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의 아마존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고객에게 수요를 우선시하고자 생활 필수품 외의 제품은 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배송이 가능한 생활 필수품은 가정용 기본 식료품과 포장 식품, 건강관리, 위생용품, 개인 안전 및 기타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을 우선 배송하며, 우선순위가 낮은 제품의 배송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배송 중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되며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함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임
 - 아마존의 CEO이자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곳의 사람들, 특히 노인과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함
 - 최근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딜리버리 서비스 파트너와 Amazon Flex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부금으로 글로벌 아마존구호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함

■ 참고자료 : <https://www.supplychaindive.com>, (검색일: 2020. 03. 24.)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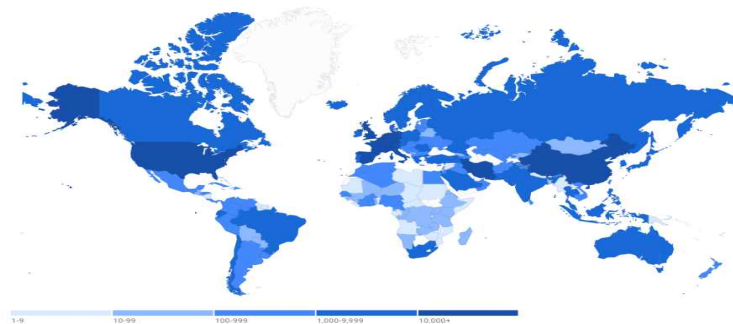
영국, Mersey Maritime을 필두로 코로나19 TF 운영

- 지난 연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는 치명적 바이러스로 영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발견된 폐렴(COVID-19)에 관한 보고서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됐고, 우한 보건 당국은 이 폐렴이 12월 12일에서 29일 사이 발병한 것으로 발표함
 - 우한 보건 당국은 올해 1월 11일 첫 번째 사망자 발생을 발표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국이나 외출을 금지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외식을 포함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됨
 - 소비 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은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급휴직이나 인력감축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함

코로나19 확진자 지도(2020년 3월 30일 13시 기준)

Coronavirus (COVID-19) map

Updated less than 40 minutes ago



자료 : <https://google.com/covid19-map/?hl=en> (검색일: 2020.03.30)

- 영국은 Mersey Maritime을 필두로 코로나19 TF를 운영함
 - Mersey Maritime은 영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리버풀을 대표하는 기업임
 - 이 기업의 대표 Chris Shirling-Rooke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공급사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함
 - 'The New Maritime Business Continuity Taskforce'가 결성됐으며, 해사 생태계 금융자산의 유동성 확보와 경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 특히, 정부 핵심 부서와 대화창구를 마련해 필요시 즉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 <https://www.klamathcounty.org/1055/COVID-19-chronology> (검색일: 2020. 03. 30.)
<https://www.thebusinessdesk.com/northwest/news/2057669-mersey-maritime-takes-lead-role-in-uk-supply-chain-taskforce> (검색일: 2020.03.30)

앤티워프항, 코로나19 대비 TF 운영을 통해 공급망 모니터링

- 벨기에 앤티워프항은 코로나19 대비 TF 운영을 통해 공급망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TF에는 앤티워프항 당국 외에도 소방대, 해양경찰, 내륙수관리국, Infrabel(철도 회사), Maritieme Dienstverlening en Kust(해양서비스관리), Alfaport-Voka(물류 및 상공협회), 벨기에 교통부(운송 관리), 벨기에 식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 등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 물류 현황 및 환적 상황 파악, 경제적 영향 분석, 항만 운영 문제점 파악, 항만 접근성 확인, 인력 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있음
- 현재 앤티워프항 공급망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Maritime Services and Coast와의 논의를 통해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앤티워프 조정센터를 두 군데로 분산하여 가동함으로써 항만 플랫폼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화물량은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오는 선박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
 - 항만 인력 운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적 과정에서의 지연도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상품 및 원자재의 외부 이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원격 통신 및 디지털 방식의 문서 교환을 통한 직접 접촉 방지, 개인 간 거리 1.5m 준수, 세정제 제공 및 기본 위생 조치 강화를 시행하여 공급망 유지하고 있음
- 앤티워프항 TF는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함
 - 항만 내에서는 상품 및 원자재의 외부 이동이 둔화됨에 따라 창고와 같은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현재 건강식품 및 장기 보관 가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당 공급망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EU 간의 공조가 필요함
 - 현재 EU에서는 트럭의 빠른 이동을 위한 'Green Lane'을 만들어 국경 통과에 15분 이상 걸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않아 해결 방안 모색 중임
 - 자동차 산업과 같은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아 관련 물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 분석이 필요함

참고자료 : www.portofantwerp.com, (검색일 2020. 03. 19.) ; www.hellenicshippingnews.com, (검색일 2020. 03. 27.)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UPS, 자율주행 트랙터 시범 운영

- 영국 UPS는 Gaussin에서 개발한 자율주행가능 전기식 트랙터인 Electric Shifter(이하 쉬프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Gaussin의 쉬프터는 수동 또는 자율 모드로 운송할 수 있으며, 현재 UPS의 영국 물류허브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동 제품의 시범 운영은 2019년 6월, Gaussin과 UPS가 서명한 “Master Supplier Agreement”에 의해 수행됨
 - Gaussin 쉬프터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배터리 교체 방식을 채택하여 충전을 위한 대기 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수많은 카메라 및 센서, 정교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더욱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음
 - 테스트의 초기 단계에는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영 및 효율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며, 올해 말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함
- Gaussin의 쉬프터는 트레일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스왑바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함
 - 스왑바디 시스템은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탈착할 수 있어 운전자의 하차 및 추가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증대됨



사진 : WorldCargo News, (2020.3.12.)



사진 : GAUSSIN france, YouTube, (2020.3.11.)

- 참고자료 : GAUSSIN france, <https://www.youtube.com/watch?v=6vomJBH4EEs>, 2020.03.11.
WorldCargo News, UPS tests Gaussin tractor, (검색일: 2020. 03. 12.)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